

## “올바른 선택으로 농업미래 개척을”



박의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농민도 체면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오늘의 농업 현실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주체가 농민임을 누구도 부인 못하는데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이 어머니 같은 농민·농촌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 나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풍전등화이자 백척간두에 처한 농업 현실에서 여러분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찾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귀중한 시간임을 한농연 동지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농업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할 주체는 바로 12만 한농연 동지이고, 여러분이 농업의 주체요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350만 농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생존권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미 FTA는 정부 일방적으로 체결했고 현재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한미 FTA는 농민의 생명을 담보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투쟁의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오늘 대선 후보 누가 350만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인가 평가하는 마지막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평가를 통해 훌륭한 농업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 농정혁신 촉구 결의문

우리 농업은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정책의 반복으로 붕괴직전에 처해 있으며, DDA농업협상과 각종 자유무역협정으로 심각한 위협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커져가는 도농 간의 소득격차와 농가부채로, 농업인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농촌 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역대 정권은 선거철 마다 현장농민을 찾아다니며, “활력 있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겠다”고 350만 농민들에게 다짐해 왔다. 그러나 막상 임기가 시작된 후에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무시한 채 산업적 비교 우위만을 내세워 농업과 농촌을 언제나 타산업과 도시 발전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350만 농민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했다. 그러나 17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을 남겨놓은 현 시점에도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정공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 12만 농업경영인은 대통령 후보와 각 당에 농업과 농촌, 농민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농정공약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남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단결된 모습과 행동으로 농민의 힘을 보여줄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신념을 가진 대통령을 선출해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이번 17대 대통령선거가 병폐적 지역선거가 아니라 350만 농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나, 한농연이 제시한 13대 핵심농정공약을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깊은 늪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회생시킬 의지와 농업에 대한 애정, 농업 철학을 지닌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각 대통령 후보의 농업에 대한 의지, 철학, 애정을 확인하고 대선공약을 냉철히 평가하여 350만 농민의 생존을 진정으로 책임지려 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도록 단결된 모습과 행동으로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11월 6일, 12만 농업경영인 일동

### 한농연 핵심 13대 농정공약

1.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2.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농가신용회복 기금 마련
3. 농협을 농민조합원의 실질적 경제조직으로 개편
4. 미래가치투자 농업예산 확충
5. 3대 양극화(도·농간, 농업내부간, 지역간) 해소
6. 농촌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7. 정부의 농업보호의지 확인을 위한 농업법 제정
8. 환경자원직불제 도입
9. 한반도 농업공동체 건설
10. 식량자급률 상향 설정 및 쌀 목표가격 법제화
11.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개편
12. 계약재배촉진기금 2조원 확충
13. 자치와 참여농정을 위한 농업회의소 건설